

조선호텔 벽화와 식민지 근대 벽화의 公的 기능

김정선*

- I. 머리말
- II. 조선호텔 벽화 개요
- III. ‘朝鮮趣味’와 명소의 탄생
- IV. 주제선정과 철도사업
- V. 맺음말: 환구단에서 조선호텔로

I. 머리말

설치 장소를 전제로 하는 벽화는 회화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타블로와 달리 주제 선정에서 표현 방법에 이르기까지 외부와 연결된 사회 공간과의 관계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국가 주도 공공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가 개인의 창의성보다 ‘공공성’, ‘사회적 기능’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 일본에서는 1890년대 이후 연이어 건설되는 공공 건축물의 내부에 “국가의 명예를 표현하고 국민 도덕 교육에 이바지 하거나 역사 참고자료”¹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반하는 벽화가 정부 주도 하에 다수 설치되었다. 본 논고는 이러한 근대 벽화의 ‘公的’ 기능이라는 관점에 주목하여, 1914년에 제작된 조선호텔 벽화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 본 논고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 758)

¹ 후지타 츠구하루(藤田嗣治), 「壁画の新しい方向」, 『アトリエ』(1936. 7), p. 3.

조선히텔은 1914년 10월, 고종의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圓丘壇²과 석축의 일부를 허물고 조선총독부 철도국 직영 호텔로 개관했다. 이후 1967년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1층 중앙 홀과 연회실에는 일본 근대 서양화가 아마시타 신타로(山下新太郎, 1881-1966)와 유아사 이치로(湯浅一郎, 1868-1931)가 제작한 벽화가 설치되어 있었다.³ “조선의 風色”을 주제로 했다는 이들 벽화에 관해서는 소메야 시게루(染谷滋)의 <조선히텔 벽화 밑그림>(군마현립근대미술관 기탁)을 소개한 짧은 논고가 유일하며,⁴ 현재까지 15점에 이르는 전체 작품이 소개된 적은 없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먼저 당시의 사진, 미술 잡지, 설계도면 등을 참조하여 조선히텔 벽화의 전체상을 소개하고, 주제 선정의 경위를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취미’와 조선총독부 철도사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중앙 홀에 그려진 “수원, 경주, 전라북도, 금산사, 개성, 경성 창덕궁 비원, 우이동 및 금강산의 절경”은 1914년경 완공되는 철도노선과 일치하는 장소들이며, 일본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명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선히텔 벽화가 단순히 벽면을 장식하는 심미성을 넘어 당시의 식민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 아래에서 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논의가 식민지 근대 벽화의 공적 기능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1 환구단과 황궁우 전경 사진, 1897년 경

² 圓丘壇은 당시 圓丘壇(원구단)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圓丘壇의 한자 독음 역시 환구단과 원구단으로 혼용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2005년 문화재청에서 한자 표기는 『고종실록』에 기록된 ‘圓丘壇’으로, 한글 표기는 고종이 제사를 지낸 1897년 10월 당시 『독립신문』을 따라 ‘환구단’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당시 신문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제외하고는 환구단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³ 조선히텔은 1967년 현 웨스턴조선히텔의 신축을 위해 건물이 모두 철거되었으나, 연회실과 중앙홀에 설치되어 있던 벽화의 제거 시기는 각각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등을 참조하면 연회실의 경우 1961년 교통부 인수 이후의 대대적인 수리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회화로 교체되었으며, 중앙홀의 벽화들은 1967년의 호텔 철거와 함께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관광공사 조선히텔처리위원회, 『조선히텔처리지』(1967. 9)

⁴ 染谷滋, 『京城朝鮮ホテルの壁畫』, 『群馬縣立近代美術館 研究紀要』 제2호(2006), pp. 15-16. 이 외에 조선히텔을 다룬 글로는 발레리 조레조 외, 『도시의 창, 고급호텔』(후마니타스, 2007); 도미타 쇼지, 『근대 문명의 상징 호텔』(논형, 2008); 오인욱, 『근대 호텔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과 실내디자인 사적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5권 4호(2006); 정영효, 『조선히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상』, 『한국어문학연구』 제56집(2010); 서동제 외, 『京城都市構想圖』에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會計畫系論文集』 제78권 687호(2013. 5)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대부분 호텔의 설립 과정과 배경 등에 치우쳐져 있는 면이 강하고 호텔 내부의 구조나 배치 방식, 벽화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하다.

II. 조선폰텔 벽화 개요

조선폰텔은 1911년에 신설 계획안이 발표되어 1913년 현 소공동에 있던 환구단을 허물고 이듬해 완공되었다.⁵ 환구단은 광무 원년인 1897년에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던 장소로,⁶ 환구단 조성 2년 후인 1899년에는 팔각 모양의 3층 지붕인 皇穹宇를 권내에 조성하여 여러 신들의 위패를 모셨다(도 1). 조선폰텔은 바로 이러한 조선왕실의 상징 공간인 환구단을 파괴하고 神位版을 모신 황궁우를 후원의 감상물로 남겨둔 채 1914년 9월 30일 완공되었다(도 2).



도 2 조선폰텔과 황궁우 사진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당시 북유럽에서 유행하던 유겐트 스타일(Jugend stil) 양식에 ‘조선취미’를 가미한 절충적 양식의 건물이었으며, 벽화는 1층의 중앙 홀과 연회실에 설치되어 있었다.⁷ 1967년 호텔이 철거되면서 현재 벽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나,⁸ 1913년 8월

⁵ 조선폰텔 설립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년 도	호텔 건설	년 도	호텔 건설
1911.2	조선총독부 환구단 수용	1913.4.17	본관 기초 공사 착수
1911.11.21	조선폰텔 신설 계획 발표	1914.9.30	준공
1912.11	호텔부지로 환구단 결정	1914.10	개관
1913.3.15	환구단 파괴		

⁶ 환구단은 원래 天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祭天壇을 가리킨다. 제도화된 圓丘祭는 고려 성종(재위 981-997) 때 부터라고 전해지며, 세조(재위 1455-1468) 때 왕권강화를 위해 환구제를 다시 부활시켰으나, 세조 10년에 폐지하였다.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1897년 현재의 자리에 설치되었다.

⁷ 조선폰텔의 설계는 당시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던 독일인 게오르그 데 라란데(George de Lalande, 1872-1914)가 맡았다. 그는 이 외에도 조선주차군사령부 관저, 조선총독부청사(1914년 데 라란데가 사망함으로써 이후 일본인에 의해 수정), 평양 모란대공원 계획안 등 조선의 건축, 조경 계획에 다수 관여했다. 데 라란데에 관해서는 김정동, 『조선총독부 청사를 그린 게오르그 데 라란데』, 『일본을 걷는다』(한양출판사, 1997), pp.157-172; 서동계 외, 『テ・ラランデの京城都市構想図と景福宮敷地平面図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誌』 1914(2014.5) 등을 참조.

⁸ 벽화의 정확한 의뢰시기, 의뢰인, 의뢰내용 등은 알 수 없으나, 아마시타 신타로의 자필 연보에 의하면 벽화는 독일인 설계사 게오르그 데 라란데의 추천으로 조선철도국이 아마시타에게 의뢰했으며, 벽화의 규모와 촉박한 시일 때문에 유야사 이치로에게 협업을 부탁했다고 한다. 染谷滋, 앞의 글, p.15.

호『美術新報』에 실린 기사와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1915년에 출간한『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에 따르면 벽화는 “15매로 구성된 조선 風色을 주제로 한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一, 중앙 홀

北歐 近世式의 장식을 주로 하며 이에 동양취미를 가미해 네 벽은 참나무에 색을 입히고, 수원, 경주, 전라북도, 금산사, 개성, 경성 창덕궁 비원, 우이동 및 금강산의 절경을 그린 유화를 상감해 장식하고 (중략)

一, 연회 홀

北歐 近世式의 장식으로 벽의 아랫부분에 두른 판자, 기둥, 벽면의 돌출부는 참나무를 사용해 흑갈색으로 칠하고 벽은 회칠하여 정면에는 평양 대동강의 풍경을 나타낸 대벽화를 삽입했다.¹⁰

즉, 위의 기록을 통해 중앙 홀에는 수원, 경주, 전라북도, 금산사, 개성, 창덕궁 비원, 우이동 및 금강산의 풍경이, 연회실에는 평양 대동강 풍경을 그린 벽화 1점이 삽입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설치 장소는『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의 준공도 등을 참조하면, 중앙 홀의 경우 동서 벽면에 설치된 벽난로 주위로 3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벽화가 1점 씩, 그리고 남북 벽면에는 4점씩 8점의 벽화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벽화는 중앙 홀에 14점, 연회실에 1점으로 전체 15점이며, 이는『미술신보』의 기사 내용과도 일치한다.

다음은『조선호텔신축공사개요』에 게재된 평면도와 준공도, 호텔 팸플릿 등을 참조하여 작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회실 벽화는 북쪽 벽면 전체를 활용해 설치되어 있었으며(도3), 멀리 부벽루, 을밀대, 영명사 등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모습을 담고 있다(도4).

한편, 중앙 홀은 동서남북 네 벽면에 모두 벽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동쪽 벽면에는 팔작지붕의 누각과 그 아래의 아치형 수문이 주위의 풍광과 함께 3개의 패널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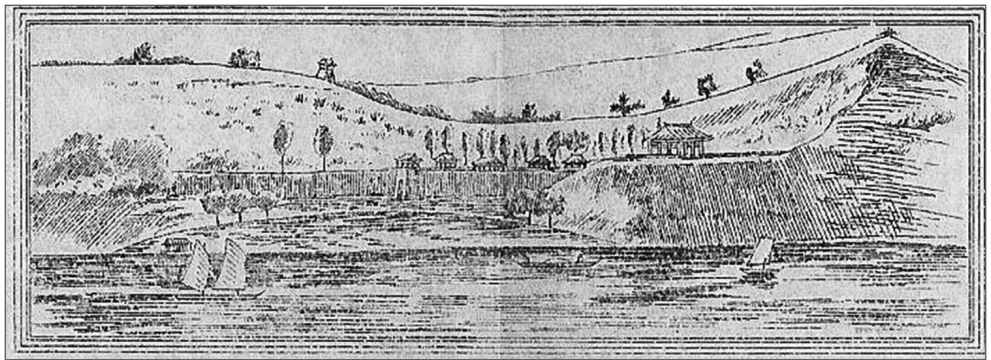
⁹ “야마시타 신타로, 유아사 이치로씨 이번 조선총독부 경영의 경성호텔의 벽화에 의촉되어 두 사람은 함께 5월 상순부터 재료 수집을 위해 조선 全道를 만유하고 6월 중순 귀경할 것이다. 벽화는 15매가 되며 조선의 풍색을 주제로 한 것으로 즉시 휘호에 착수할 것이다.”『消息』, 『美術新報』 12권 10호(1913. 8)

¹⁰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9), pp.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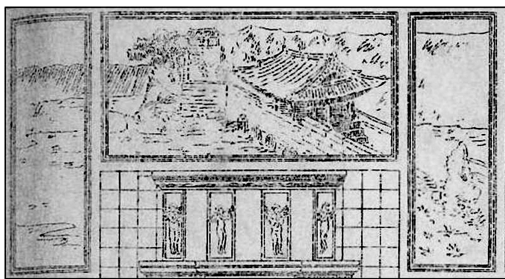
누어 그려져 있다(도5). 누각, 수문의 형태를 통해 수원 화성의 북쪽 수문인 화홍문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도6). 서쪽 벽면 역시 3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계곡과 그 사이에 흐드러지게 만개한 꽃나무들은 당시 벚꽃으로 유명했던 우이동 계곡을 연상케 한다(도7). 북벽은 한 가운데 설치된 실내분수를 기준으로 좌우 2점씩 벽화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준공도에는 분수의 향우측에 있던 벽화 2점만이 확인되는데(도8), 첫 번째 보이는 삼층의 불전과 다각다층탑은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 미륵전과 탑을(도9), 그리고 두 번째 벽화는 누각의 기



도3 조선호텔 연회실 북쪽 벽면, 19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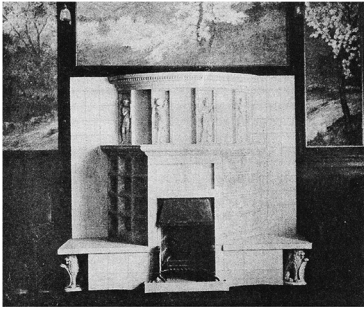
도4 조선호텔 연회실 벽화 준공도,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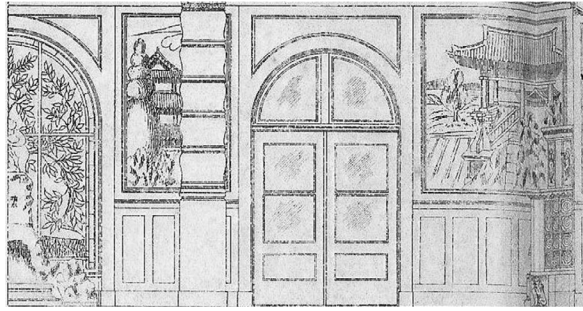
도5 조선호텔 중앙홀 동벽 벽화 준공도,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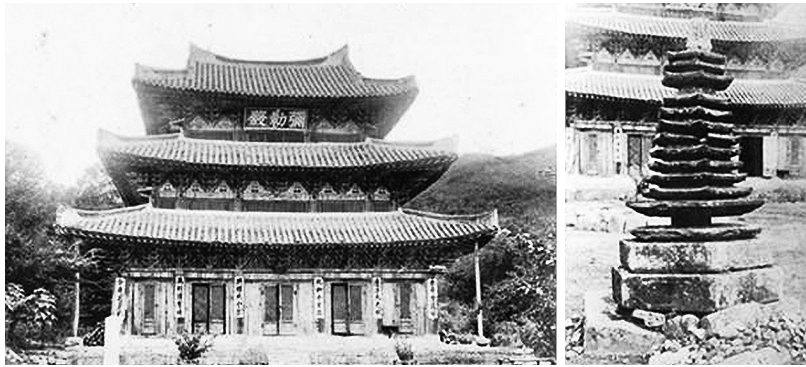
도6 수원 화성 화홍문 사진



도7 조선호텔 중앙홀 서벽 벽화 준공도,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도8 조선호텔 중앙홀 북벽 벽화 준공도,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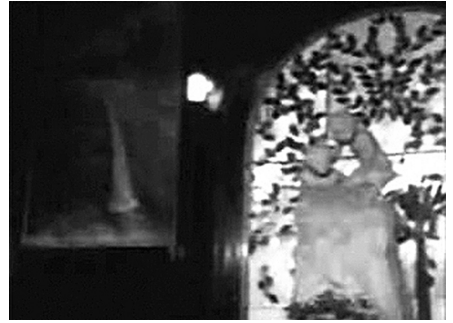
도9 금산사 미륵전과 다층탑 사진

등을 받치고 있는 십자형의 특이한 석주를 통해 불국사의 범영루와 지하문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도10). 그리고 이 외에 북벽의 경우 분수의 향좌측 벽면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다. 흑백 사진으로 정확한 모습은 단언하기 힘들다, 중앙 분수 옆에는 점차 마름모꼴로 넓게 펼쳐지며 물보라가 이는 폭폭을 벽화가 확인되며, 이는 개성의 명소, 박연폭포와 유사하다(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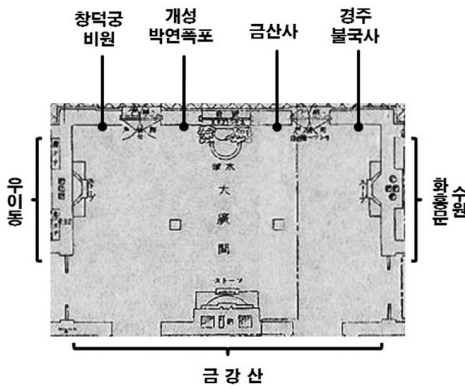
이상 추정 가능한 중앙 홀의 벽화들을 정리하여 평면도에 옮겨 보면, 동쪽 벽면부터 수원 화홍문, 경주 불국사, 전라북도 금산사, 개성 박연폭포, 우이동순이 된다(도12). 이는 『조선호텔 신축공사개요』에 “수원, 경주, 전라북도, 금산사, 개성, 경성 창덕궁 비원, 우이동 및 금강산의 절경을 그린 유화” 라고 언급한 중앙 홀의 벽화 주제와 나열 순서가 거의 일치하고, 보고서의 저자가 동에서 북, 서, 남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벽화의 순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벽화는 최종적으로 북쪽 벽면에 창덕궁 비원이, 남쪽 벽면 전체에 금강산의 절경이 위치하게 된다. 특히 남쪽 벽면의 벽화는 현재 준공도를 통해 일부 모습이 확인 가능한데, 실제 이들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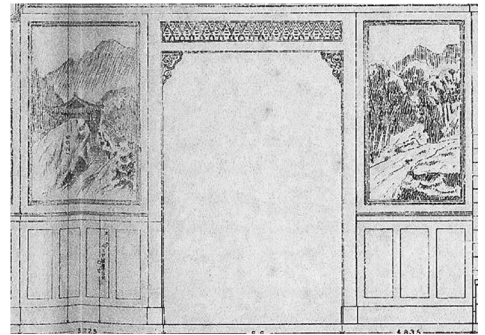
도 10 불국사 범영루와 자하문 사진



도 11 조선히텔 중앙홀 북쪽 벽면 사진



도 12 조선히텔 중앙홀 벽화배치 예상도



도 13 조선히텔 중앙홀 남벽 벽화 준공도, 『朝鮮ホテル 新築工事概要』,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화는 다른 위치의 벽화들에 비해 경물이 작고, 높고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이 공통된다(도 13). 따라서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남쪽 벽면을 중심으로 금강산의 절경이 위치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조선히텔 벽화의 전체상을 복원하면, 중앙홀에는 동쪽에 화홍문, 북쪽에 불국사, 금산사, 박연폭포, 서쪽에 우이동, 그리고 남쪽에 금강산을, 그리고 연회실에는 대동강 풍경을 그린 대벽화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대략적이거나 조선히텔 벽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당시의 문헌 및 사진자료, 준공도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원 화홍문에서 평양 대동강까지, 일제가 건립한 서양식 호텔의 내부는 언뜻 조선을 대표하는 풍광들로 채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가 어디까지나 일본인들에 의해 선정된 ‘조선적 풍색’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틀이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히텔 벽화의 주제 선정에 보이는 일본인들의 ‘조선취미’와 그들에 의해 새롭게 부각된 명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朝鮮趣味’와 명소의 탄생

〈표 1〉에 제시하고 있듯이 조선히텔 벽화로 선정된 대부분은 전통적인 명승지로 향유되던 지역들이다. 예를 들어 수원팔경의 화홍문을 비롯하여 송도삼절이자 송도팔경의 하나인 박연폭포, 금강산, 그리고 평양팔경의 을밀대, 부벽루, 영명사 등은 대표적인 기행사경의 탐승지이자 많은 문학과 예술이 탄생한 전통적인 승경지였다. 예부터 물 맑고 경치가 좋은 곳에는 이름난 명승지가 많고, 따라서 동일한 장소가 근대까지 계승, 향유 되는 모습은 전혀 새로운 광경이 아니다.

〈표 1〉 조선히텔 벽화 주제와 전통적 승경지

조선히텔 벽화 주제	내용	전통적 승경지
수원(화홍문)	사적(건축물)	華城十六景 중 虹渚素練 水原八景 중 華虹觀漲
경주(불국사)	사적(건축물)	
금산사	사적(건축물)	湖南四景 중 母岳春景(또는 金山春景)
개성(박연폭포)	산수	松都八景 중 朴淵瀑布
창덕궁 비원	미상(확인 불가)	上林十景 중 逍遙流觴
우이동	산수	『耳溪集』중 『牛耳洞九曲記』
금강산	산수/사적(건축물)	『關東別曲』 정선 《楓嶽圖帖》, 강세황 《楓嶽壯遊帖》, 조정규 《海嶽圖八曲屏》, 김하중 《海山圖帖》 등
대동강 (을밀대, 부벽루, 영명사)	산수/사적(건축물)	平壤八景 중 乙密賞春, 浮碧玩月, 永明尋僧

그런데 조선히텔 벽화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즉 이들 벽화 대부분이 절, 누각 등 건물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표 1). 물론 명승고적 대부분이 빼어난 자연경관과 오래되거나 유명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경주의 경우, 당시 화제의 중심지는 불국사 보다 오히려 1909년경에 발견된 석굴암이었다.¹¹ 조선히텔 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1912년 11월, 데라우치 총독의 경주 방문과 석굴암에

¹¹ 석굴암 발견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으나, 1909년에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1849-1910)의 석굴암 방문으로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석굴암 발견의 신화에 대해서는 강희정, 「석굴'패러다임과 석굴암」, 『미술사학』 22(2008)을 참조.

대한 대대적이 개수 지시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대변한다.¹² 석굴암은 1913년부터 2년간의 대규모 수리, 정비 사업을 통해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탈바꿈되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호텔 벽화가 유독 수원 화성의 화홍문을 비롯해 불국사의 범영루와 자하문, 대동강변의 을밀대, 부벽루 등 성문, 누각과 같은 건축물에 주목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 1918년 조선을 방문한 서양화가 나카자와 히로미츠(中澤弘光, 1874-1964)의 발언이 주목된다.

“조선의 자연은 산이 민둥산이고, 산야 일대가 短調하여 山紫水明의 경관이라 부를만한 장소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따라서 그러한 자연미는 오직 궁전 樓門 등의 건물과 그 건물을 배경으로 한 조선인의 풍속 이외에는 없다”¹⁴

여기서 나카자와는 조선의 자연이 볼품없고 대신 전통적인 건축물과 이를 배경으로 한 풍속이야말로 가장 조선적인 美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비단 나카자와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성에 거주하고 있던 마츠오카 히사코(松岡久子)는 『美術新論』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인들의 비위생적인 장면을 기술한 후에 한양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과 성문에서 비로소 꿈에서 본 조선의 역사를 떠올린다.¹⁵ 이처럼 조선호텔 벽화가 조선의 고건축을 벽화의 주요한 소재로 삼았던 데에는 조선의 누각, 성벽, 성문 등이야말로 당시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조선적인 풍광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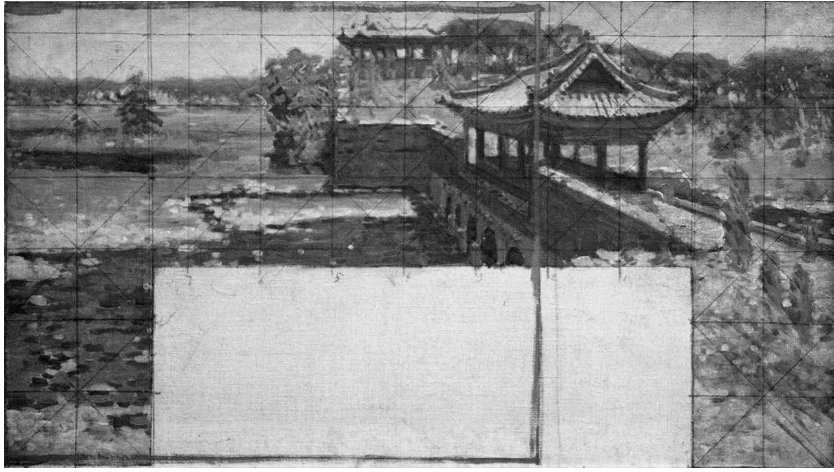
실제 조선의 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조선호텔 벽화를 그린 유아사 이치로에게서도 살펴진다. 현재 군마(群馬)현립근대미술관에는 수원 화홍문을 주제로 한 유아사의 조선 호텔 벽화 밑그림이 한 점 남아 있다(도 14). 앞서 언급한 준공도 상의 그림과도 거의 일치하는 작품으로, 유아사는 대각선 구도를 활용하여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그리고 두 건물을 이어주는 성벽을 화면 가운데

¹² 「테라우치 총독 경주행」, 『매일신보』(1912. 11. 14)

¹³ 불국사에 대한 개수는 석굴암보다 훨씬 늦은 1918년 10월부터 1925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수리는 1924년부터 25년 사이로 이 시기에 사원 전면의 석교, 석단 등이 복원되었다. 이주현, 「경주 불국사일대 문화경관의 해석」,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6), p. 50.

¹⁴ 中澤弘光, 『朝鮮の旅』, 『新日本見物』(1918)

¹⁵ “성벽을 축조하고, 성의 내외를 통과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 문을 만들었다. 만약 한번 이 성벽에 올라 그 문을 빠져 나간다면 처음으로 꿈에 본 역사의 조선이 떠오를 것이다” 松岡久子 「朝鮮を語る門と城壁」 『美術新論』(1927. 10), p. 42.



도 14 유야사 이치로 湯淺一郎, <조선호텔 벽화 밑그림>, 캔버스에 유채, 41.0×71.2cm, 군마현립근대미술관 기탁

배치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화홍문을 「虹渚素練」¹⁶, 「華虹觀漲」¹⁷ 등으로 읊으며 화홍문 아래로 장엄하게 쏟아지는 물살을 감상의 주요 장면으로 삼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데 오히려 유야사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화홍문의 세찬 물줄기보다 누각과 성벽이 있는 조선적 풍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야사의 이러한 조선 고건축에 대한 관심은 그가 二科展에 출품한 조선관련 작품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유야사는 1913년 5월 초 벽화제작의 자료 수집을 위해 조선을 처음 방문한 이래,¹⁸ 이과전에 조선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다수 출품했다. 그 가운데에는 평양의 모란대를 비롯해 수원 화홍문, 인왕문, 동대문, 광희문 등 적지 않은 수가 성곽, 성문, 누각이었던 사실은 그가 조선의 건축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표2).

¹⁶ 「虹渚素練」은 화성16경 가운데 한 구절로 “흰 비단을 펼친 듯한 화홍문의 물살”을 의미한다. 화성16경은 화성 축조 이후 정조대에 화성의 절경을 春 8경과 秋 8경으로 선정하여 완성되었다. 정확한 비정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96년 10월 16일 화성 낙성연을 개최한 이후에 춘·추 8경 16경을 병풍으로 그려 화성행궁에 상설하였다함으로, 16경의 확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동민, 「수월팔경의 확정과 전개-이원규의 수월팔경가를 중심으로」, 『수월팔경』(수원박물관, 2014), pp. 272-275.

¹⁷ 「華虹觀漲」은 “화홍문 아래로 쏟아지는 힘찬 물줄기를 보다”라는 뜻으로, 1910년대 완성된 수원8경의 한 구절이다. 수원8경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1914년 경 처음 서술했다는 설이 유력했으나, 최근 그 이전부터 이미 화성 16경의 전통을 잇는 수원8경이 존재했으며 일반인에게 유통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한동민, 앞의 논문, pp. 275-280)

¹⁸ 「消息」, 『美術新報』 12권 10호(1913. 8)

〈표 2〉 유아사 이치로 조선관련 출품작 목록¹⁹

년도	작품명	출품 이력
1914년	〈官妓〉	제1회 이과전
	〈평양 모란대〉	제1회 이과전
	〈수원 화홍문〉	제1회 이과전
1915년	〈阿橋〉	제1회 이과전
	〈船橋〉	제2회 이과전
	〈북한산〉	제2회 이과전
	〈창문 가까이에 선 官妓〉	제2회 이과전
	〈인왕산〉	제2회 이과전
	〈관기의 생활〉	제2회 이과전
	〈家庭〉	제2회 이과전
	〈인왕문(서대문 밖)〉	제2회 이과전
	〈외출〉	제2회 이과전
	〈시장에서 북한산〉	제2회 이과전
	〈동대문〉	제2회 이과전
	〈百日草〉	제2회 이과전
1917년	〈광희문 밖〉	제4회 이과전
	〈바람 부는 날(경성)〉	제4회 이과전
1918년	〈中庭(조선)〉	제5회 이과전

* 짙은 색은 성벽 및 성문을 주제로 한 작품을 나타낸다.

한편, 일본인들의 조선풍경에 대한 이국적 시선은 연회실에 설치된 대동강 풍경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평양성과 그 주변의 풍광은 중국의 소주, 항주에 버금가는 비경으로 그 명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지역이다. 벽화에 등장하는 부벽루, 영명사, 을밀대는 평양팔경의 대표적인 주제이자,²⁰ 평양 감사의 부임을 환영하기 위해 부벽루에서 베풀어진 연회를 담은 〈부벽루 연

¹⁹ 유아사 이치로와 조선관련 논문으로는 즐고, 「1910년대 일본 근대화단의 형성과 조선: 유아사 이치로(湯淺一郎), 후지시마 다케지(藤島武二)를 중심으로」, 『문물연구』 21호(2012. 3)

²⁰ 평양팔경은 15세기 경 조위(1454-1503)가 지은 「平壤八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을밀대, 부벽루, 영명사는 평양팔경 가운데 을밀상춘(乙密賞春: 을밀대에서 바라보는 봄 경치), 부벽완월(浮碧翫月: 부벽루의 달맞이), 영명심승(永明尋僧: 영명사를 찾아드는 중들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특히, 18, 19세기에는 8폭이나 10폭의 병풍에 평양성의 전경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그린 대형 화면의 작품이 상당량 제작되었다. 박정애, 「조선 후기 평양명승도 연구-《평양팔경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제39집(2012).

회도)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이기도 했다. 특히 을밀대, 부벽루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청벽류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맑은 대동강물과 능라도의 들판, 크고 작은 산들이 만들어내는 경관은 오래전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했다.²¹ 유아사 일행 역시 1913년 평양의 부벽루를 방문하고, 그 절경을 그린 <부벽루>라는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조선호텔 벽화는 “대동강변의 절경”을 이러한 을밀대, 부벽루와 같은 높은 누정에서가 아니라, 마치 대동강에 배를 띄워 놓고 바라보듯 부벽루와 그 주변의 경관을 담고 있다. 야마시타와 유아사가 이러한 구도를 선택하게 된 구체적인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자연 경관만을 그리는 것에 비해 을밀대, 부벽루, 영명사 등의 건물을 배경으로 한 풍광이 보다 조선적 정취를 느끼게 했을 것은 쉽게 상상이 가는 대목이다. 1918년 경 평양을 방문한 서양화가 나카자와 히로미츠(中澤弘光) 역시



도 15 『西鮮地方』, 조선철도국, 1939년

“평양의 절경은 모란대, 을밀대에서의 전망이 아니라 대동강변에 띄운 배에서 보는데 있다. (중략) 영명사의 梨花, 부벽루의 벚꽃, 樓上의 白衣, 춤추는 기녀들, 황홀하게 四邊을 둘러본다.”²²

라며 대동강의 배 위에서 바라보는 황홀경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나카자와가 말하는 대동강 뱃놀이는 당시 평양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부벽루, 을밀대를 배경으로 기생을 태운 화려한 놀이 배는 관광객자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도 15).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가 출간한 여행 안내서에는 대동강 유람을 다음과 같은 소개하고 있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물이 아름다운 대동강, 누구라도 배를 가운데 띄워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곳에는 호화로움을 자랑하는 그림배가 한 척 손님을 기다리고

²¹ 부벽루의 뛰어난 풍광은 오랫동안 시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이색의 「부벽루」를 비롯해 고려시대 유명한 시인 김황원은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에 시를 짓다가 더 이상의 시구가 떠오르지 않자 통곡하며 붓대를 꺾고 말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²² 中澤弘光, 『朝鮮の旅』, 『新日本見物』(1918)

²³ 『반도의 인상』,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1930년대)

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극채색의 것으로 아름다운 기생을 태우고 천 년의 옛날을 그리워 한다는 것이 멋지다.”²³

기생들과 함께 화려하게 채색된 놀잇배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감상하며 천 년 전의 과거를 떠올리는 여행객들의 모습은, 조선호텔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며 동양의 비경으로 불리는 대동강변의 절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감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회실에 걸린 대동강변의 모습은 전통적인 名所繪와는 다른 일본인들이 보고 싶고 기대했던 조선의 풍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호텔 벽화 가운데에는 전통적인 명승지와 더불어 우이동, 경주 등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명소가 포함되어 있다. 1960~70년대 서울 근교의 유원지로 친숙한 우이동이 벚꽃의 명소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12년 전후이다.²⁴ 원래 조선후기 실학사상가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활을 만드는 재료에 쓰고자 수백 그루의 벚나무를 우이동에 옮겨 심었던 것이, 한일병합 이후 일본인들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일본인이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²⁵ 벚꽃 관광의 명소로 각광 받게 된 것이다. 특히 1911년 경원선의 용산~의정부구간이 개통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우이동 꽃구경을 갈 수 있게 되었고,²⁶ 1915년 봄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다.²⁷

경주 역시 근대기에 들어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곳이다. 1902년에 실시된 동경 제국대학 건축과 교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8-1935)의 조선 고건축물 조사를 필두로, 경주 고적 발굴과 연구, 보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²⁸ 불국사가 1902년에, 석굴암이 1909년에 ‘발

24 “우이동의 사쿠라(櫻)는 3년 전 일본인이 처음 발견한 이후부터 행화의 명승지로 경성 내외에 이름이 널리 났다.” 『매일신보』, 「우이동 櫻의 유래」(1915.5.5)

25 “우이동이라는 곳은 북한산의 작은 부락으로 지금은 경성의 일본인 가운데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중략) 경성의 일본인은 매년 우이동에 벚꽃이 피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難波可水, 「日本人と櫻花; 牛耳洞紀行」, 『朝鮮及滿洲』 51호(1912.5)

26 우이동까지는 주로 경원선 창동역에서 내려 도보나 버스를 이용했으며, 조선총독부철도국에서 觀櫻열차를 운행하기도 했다.

27 “사람들의 발자취가 絡繹不絕하며 자동차, 마차, 인력거, 자전거가 연하여 왕래하여 하루에 그 수요가 기천에 이르고 사람의 수호는 기만 명을 가히 계산할지라.” 『매일신보』(1915.5.7)

28 이 외에도 세키노는 1차적으로 1909년부터 1911년까지 3년간 조선의 지방도시 50개소의 고적, 고건축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조선호텔 벽화로 선정된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수원 화성, 평양 부벽루, 영명사 등은 이 시기의 조사 대상이었던 지역들이다. 1911-13년 세키노의 조선 고적 조사 목록은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경인문화사, 2008), pp. 47-60을 참조

견, 소개되면서 1920년대 경주는 조선의 ‘古都’로 금강산과 더불어 조선 여행의 으뜸으로 등극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조선호텔 벽화는 전통적으로 향유되던 명승고적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일본인 바라보고 개발한 새로운 명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이 “조선의 풍색”으로 선정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총독부의 철도사업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주제선정과 철도사업

조선병합 직후인 1911년, 조선호텔의 신설 계획안이 발표된 것은 “鮮滿연결의 완성 이래 각 나라의 사람이 조선을 통과하는 자가 다수 증가하니 여행객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가장 필요함을 느끼는 것은 여관의 설비”²⁹ 때문이었다. 실제로 1911년 압록강 철교의 완성은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関)에서 경부선, 경의선을 통과해 하얼빈,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대륙철도의 시대를 열게 된다. 조선호텔은 이러한 급속히 확장하는 철도건설과 이에 따라 급증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³⁰ 그런데 한편으로, 조선호텔이 1914년의 시점에 완공을 서둘렀던 데에는 이듬해 개최 예정인 施政5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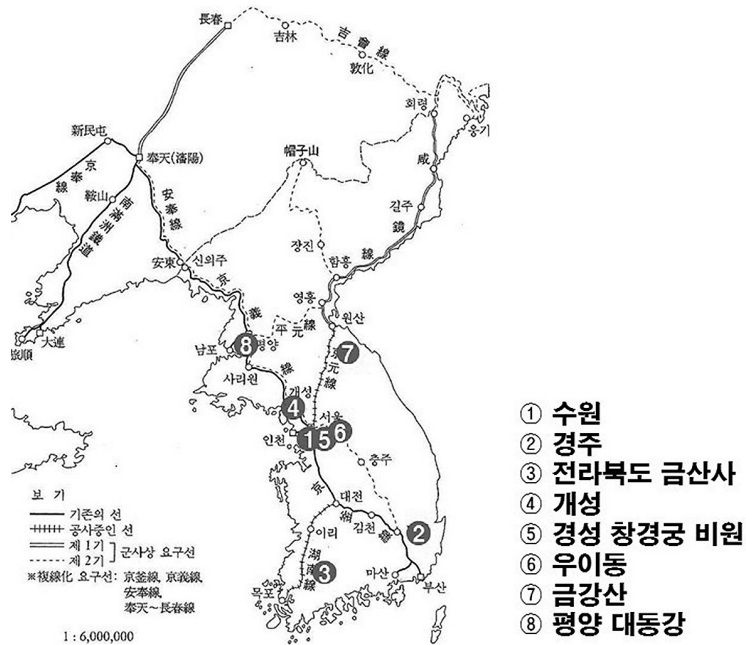
공진회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 제1회 공진회를 계획하는데 있어, (중략) 경원철도 및 경성의 太平通路의 도로개수 공사, 조선호텔의 신축공사 등의 낙성을 보게 되었다.”³¹라고 해서 조선호텔이 경원철도 및 경성의 태평 통로의 도로개수 공사와 더불어 공진회 개최의 주요 기반 사업으로 완공을 서두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호텔은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의 개최와 철도망의 확장에 따른 여행객들의 증가를 배경으로 구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벽화의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호텔이 완공되던 1914년을 전후한 시기의 철도사업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1894년 8월, 朝日暫定合同條款에 따라 조선에서의 철도 시설권을 획득한 일본은 1899년에

²⁹ 『朝鮮鐵道史』, 조선총독부철도국(1915)

³⁰ 1912년 7월 개관한 부산철도호텔을 필두로 철도 노선 및 관광지 개발에 따라 신의주(1912), 금강산(1915), 평양(1925) 등에 조선총독부철도국 직영의 철도호텔이 들어섰다.

³¹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1권, 조선총독부(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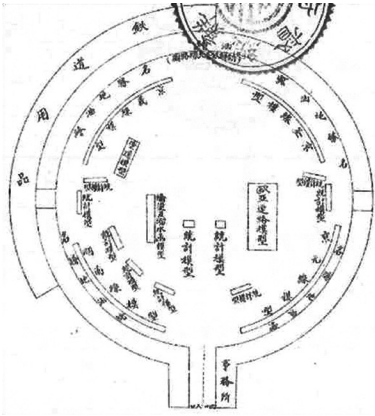


도 16 1910년대 철도노선과 조선히텔 벽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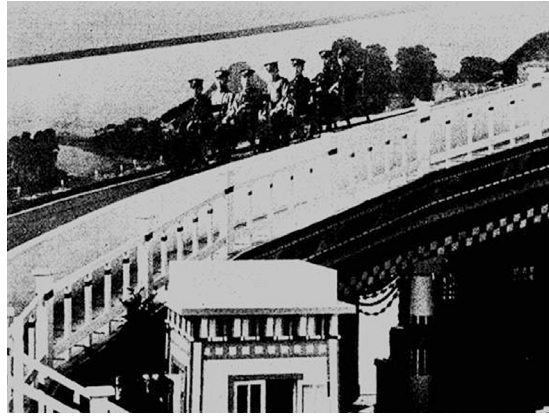
개통한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5년에는 경부선을, 다음해 1906년에는 러일전쟁의 군사운송을 목적으로 한 경의선을 완공한다. 그리고 1910년 조선 병합 직후부터는 호남선과 경원선 공사에 돌입하여 1914년 1월에 호남선이, 8월에 경원선이 완공되고 드디어 경성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X자형의 철도망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조선히텔의 벽화로 선정된 수원, 경주, 전라북도 금산사, 개성, 경성 창덕궁 비원, 우이동, 금강산, 평양 대동강은 바로 이시기 완공된 철도노선과 거의 일치하는 지역들이다(도 16). 특히, 중앙홀에 설치된 벽화의 위치를 철도노선과 비교해 보면 동서 북벽의 수원, 경주, 비원, 우이동이 경부선 노선 상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각 노선을 대표하는 명소들로, 예를 들어 호남선에 금산사, 경의선에 개성, 경원선에 금강산이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선히텔 벽화는 1914년 경 완공된 철도노선 상의 명승지들을 주제로 삼아 제작된 것이다.

철도국 직영호텔의 벽화로서, 철도와 관련된 조선의 풍광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적합한 주제였을 것이다. 게다가 조선히텔 벽화가 예를 들어 경주, 우이동 등 근대 철도사업의 확장으로 새롭게 부각된 명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벽화에 그려진 “조선의 풍색”은 조선의 풍광이며 동시에 일제의 근대적 철도 기술로 새롭게 개척된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도 17 조선물산공진회 철도관 내부 안내도



도 18 조선물산공진회 철도관 내부 모습, 1915년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조선의 명소는, 식민 통치 5년간의 치적을 선전한 대규모 공진회를 통해 대중에게 전시되었다.

총독부 철도국은 조선물산공진회장에 참탑이 솟아 있는 높이 3층의 철도국 특별관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관람객들이 모형 열차를 타고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을 둘러보는 코스를 마련했다(도 17). 특히 벽면에는 각 지역의 풍광을 그린 파노라마식의 유화가 설치되어, 관람객들은 새롭게 완공된 열차 노선을 따라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조선의 풍경을 경험하게 된다(도 18). 그리고 전국을 잇는 철도망의 완공과 이를 가능하게 한 제국 일본의 힘을, 대중들은 모형 열차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새롭고 낮은 풍경을 통해 느꼈을 것이다.

이외에도 경주, 금강산, 비원 등이 공진회를 통해 새로운 명소로 고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공진회장 내에 건립된 미술관에는 경주 남산의 약사불과 신라 석굴암의 불상을 본뜬 모형들이 진열되어³² ‘古都 경주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한편, 평소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비원이 공진회 기간 중 공개되기도 했다.’³³ 국내외에서 116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던 공진회를 통해 일본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명소는 점차 대중적인 ‘조선의 관광지’로 변모되기 시작한 것이다.

³² “미술관에는 중앙 전열실에 경주 남산의 약사불을 안치하고 계단 위 중앙과 계단 아래 좌우에는 경주 석굴암의 불상을 본뜬 모형이 전시되었다.” 서병협, 『공진회 실록』(박문사, 1916)

³³ 「가을의 비원을 기쁘게 개방한다」, 『경성일보』(1915. 9. 6)

이제까지 조선호텔 벽화를 총독부의 철도사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실제 벽화로 선정된 주제는 1914년 경에 완공된 철도 노선 상에 위치하는 명소들로, 이러한 선택의 이면에는 식민통치 하에 기획된 철도의 확장과 이에 따른 명소의 생산과 재배치의 과정이 있었다. 이는 조선호텔 벽화가 단순히 벽면을 장식하는 심미적 기능을 넘어, 당시의 식민정책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텔 내부를 장식한 “조선의 풍색”은 조선의 풍광이며, 동시에 일본인 바라보고 개발한 새로운 명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환구단에서 조선호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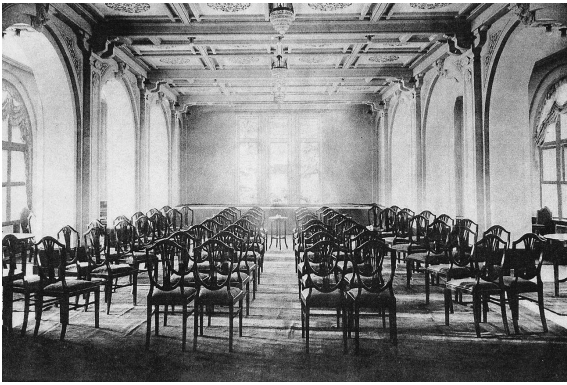
끝으로 조선호텔 벽화의 공적 의미를 조선호텔 설립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호텔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텔 신축계획안이 발표된 것은 1911년 11월이며 최종적으로 환구단이 호텔 부지로 확정된 것은 1년이 지난 1912년 11월이었다. 당시 『매일신보』 기사 등을 참조하면 “환구단이 후보지로 유력하기는 하나, 남대문에서 거리가 멀고, 평수도 육천 평에 불과해” 고심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³⁴ 이후에도 이러한 철도국의 고민은 계속되는데, 1912년 8월 31일 기사에는 첫 번째 희망지로 철도역이 인접한 경성역 부근이 언급되기도 했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역에서 다소 거리가 먼 환구단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땅은 임진왜란 때 우키다 히테이에(宇喜田秀家)의 군대가 本陣을 두고 군정을 펼쳤던 유서 있는 토지이며, 또한 고려 숙종왕의 南別宮이 있던 장소이며, 1897년 10월 12일 고조대왕이 한국으로 새로 제정을 선포하고 이곳에서 즉위의 대전을 올린 장소로, 지금 호텔 건물이 있는 주변은 당시 환구단이 있던 곳이다.”³⁶

³⁴ “京城의 鐵道호테루의 位置에 關하여는 各種의 風說이 有하되 得聞한 바에 의하면 長谷川町 환구단도 그 후보지로 유력한 자 中 一이라 다소 남대문정거장에서 거리가 遠한 嫌이 有하되 평수도 육천여 평이라… 爲先 敷地는 환구단으로 假定하여도 無妨하겠다더라” 『매일신보』 (1912. 5. 14)

³⁵ “京城鐵道호테루 건설지는 旣報와 如히 長谷川町 환구단을 適當으로 하여 大략 內定하였다더니 更히 철도측의 희망으로 第一은 停車場前의 大屋長官官邸附近 第二는 南大門通의 荒井度支部長官官邸附近 第三은 大觀亭 及 景性수비대를 합한 지구를 희망하여 부득이하면 원구단으로 決코저하난 모양인데…” 『매일신보』 (1912. 8. 31)

³⁶ 『大京城案内』, 경성도시문화연구소(1936)



도 19 조선호텔 집회실,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도 20 집회실 스테인드글라스 준공도 <羽衣>

즉, 이곳이 호텔 부지로 선정된 것은 중국 사신을 접견하던 남별궁이 있던 자리이자,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임진왜란 때 장군 우키타 히데이에가 진을 치고 있었던 일본의 입장에서 도 유서 깊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호텔이 가지는 장소성은 호텔 내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실제 조선

호텔 실내에는 순수 서양식의 외관과는 달리 和洋절충의 공간이 구비되어 있었다(도 19). 호텔 1층의 중앙 홀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한 집회실은 일본과 서양의 실내장식을 절충한 방으로, 『호텔신축공사개요』에 따르면 천정에는 헤이안(平安)식의 보상화문양이, 정면으로 난 창에는 일본의 謠曲 하고로모(羽衣), 즉 선녀 전설에서 주제를 가져온 스테인드글라스가 설치되어있었다(도 20).³⁷ 이처럼 서양과 일본의 전통이 혼합된 공간을 마련한 것은 조선호텔의 이용자 대부분이 일본인 상류층과 외국인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조선적 취미는 호텔 뒤뜰에 남겨진 황궁우를 통해 대변된다. 전술했듯이 조선호텔은 북유럽 스타일에 조선취미를 가미해, 설계에 있어서는 “배면의 양익을 돌출시켜 재래의 팔각당과 조용하여, 조선에 흔히 그 예가 있는 內庭을 구상케”³⁸ 하였다. 즉 호텔은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된 환구단을 허물고, 제신의 위판을 봉안하던 황궁우를 후원의 감상물로 남겨 둔 채 완공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는 호텔로서 조선의 흔적을 남기는 이러한 구상은 어

³⁷ 一, 집회실

和洋 절충을 활용하여.. 천정에는 헤이안(平安)식의 보상화문양이, 정면으로 난 창에는 일본의 謠曲 하고로모(羽衣)에서 주제를 가져온 스테인드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³⁸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조선총독부철도국(1915.9)

찌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실의 권위공간을 박탈하고, 몰락한 왕조의 일부를 전시함으로써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은 “다소 남대문정거장에서 거리가 遠한 嫌이 有하되 평수도 육천 여 평”³⁹ 인 이곳을 굳이 호텔 부지로 삼은 점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이처럼 조선에 건립된 최초의 본격적인 서양식 호텔인 조선호텔 내부에는 조선과 일본의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和洋절충의 공간이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근대화된 일본의 전통을 보여주는 장소였다면, 후원에 남겨진 황궁우는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호텔의 일부로, 여행객들의 “동양취미를 賞玩하는 기회”⁴⁰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되었다. 그런 점에서 조선 최고의 서양식 호텔이었던 조선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 일본의 힘’을 보여주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통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하는 일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였다. 실제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본격화되는 도시개조를 통해 조선왕실의 상징 공간은 제국의 권력과 질서를 재현하는 공간으로 변모되어 갔다. 그 대표적이 예가 1926년 경복궁 근정전 정면에 완공된 조선총독부 신청사이다.

이 건물 1층 중앙 홀에는 일본과 조선의 선녀전설과 풍속을 주제로, 양국의 친연성을 강조한 벽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벽화가 內鮮一體 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同化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음은 주제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등장인물들의 융합된 이미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⁴¹ 조선시대까지 도교, 유교의 聖山으로 많은 선비들에게 숭배되어왔던 금강산은 내선일체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선녀전설의 주요 무대로 변용되었다.⁴²

이처럼 과거의 권위와 전통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이미지를 덧입히는 작업은 환구단을 허물고, 제신의 위판을 봉안한 황궁우를 후원의 완상물로 삼으며 건립된 조선호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제국 일본에 의해 새롭게 조명된 조선의 명소를 주제로 한 조선호텔 벽화는 이런 점에서 단순히 벽면을 장식하는 심미적 기능을 넘어, 새로운 공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³⁹ 『매일신보』(1912. 5. 14)

⁴⁰ 『朝鮮鐵道史』(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p. 401.

⁴¹ 줄고, 「조선총독부 벽화에 관한 고찰: '내선일체'의 표상에서 '근대 벽화로」, 『미술사논단』 26호(2008) 참조.

⁴² 당시 조선에 전승되던 선녀전설의 수는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10년에 출간된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의 이야기 이후, 금강산은 조선 선녀전설의 주요한 배경으로 정착된다.

환구단과 경복궁이라는 조선왕실의 권위공간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는 광경은 조선의 수도 한양이 제국의 일부, 경성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과 맞물린다. 조선왕조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한양에서 경성으로 변화하는 길목에서 조선호텔 벽화는 제작된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조선호텔(Chosun Hotel), 근대 벽화(Modern Murals), 공적 기능(public function), 야마시타 신타로(Yamashita Shintaro), 유야사 이치로(Yuasa Ichiro), 조선총독부 철도국(Railway Bureau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명승(landscape), 환구단(Hwangudan)

■ 투고일 2016년 3월 1일 | 심사개시일 2016년 3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18일 ■

참고문헌

1. 사료(신문 및 잡지)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読売新聞』
『美術旬報』
『美術新報』
『みづゑ』
『時事新報』
『アトリエ』
『日展史』
『朝鮮』
『朝鮮と建築』
『朝日新聞』

2. 단행본

도미타 쇼지, 유재연 역, 『근대 문명의 상징 호텔』, 논형, 2008.
발레리 조레조, 양지윤 역, 『도시의 창, 고급호텔』, 후마니타스, 2007.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1권, 조선총독부, 1915.
『수원팔경』, 수원박물관, 2014.
이하정, 미즈노 다쓰로 편역, 『일본 작가들이 본 근대조선』, 소명출판, 2009.
『조선철도사』,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조선총독부철도국, 1915.
『조선호텔처리지』, 국제관광공사 조선호텔 처리위원회, 1967.
中根隆行,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역, 『조선'표상'의 문화지』, 소명출판, 2011.
『한국철도 100년사』, 철도청, 1999.

『近代の東アジアイメージ：日本近代美術はどうアジアを描いてきたか』, 豊田市美術館, 2009.

『戦後60年 湯浅一郎展』, 群馬県立近代美術館, 1991.

『湯浅一郎遺作展』, 群馬県立近代美術館, 1966.

3. 논문

강민기, 「근대 전환기 한국화단의 일본화 유입과 수용—187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김정동, 「도래한 서양인 건축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5권 4호, 1989, pp. 75-89.

김정선, 「조선총독부 벽화에 관한 고찰: ‘내선일체’의 표상에서 ‘근대벽화로」, 『미술사논단』 제26호, 2008, pp. 141-170.

_____, 「1910년대 일본 근대화단의 형성과 조선: 유아사 이치로(湯浅一郎), 후지시마 다케지(藤島武二)를 중심으로」, 『문물연구』 21호, 2012. 3, pp. 97-126.

박정애, 「조선후기 평양명승도 연구—《평양팔경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제39집, 2012, pp. 317-352.

오인욱, 「근대 호텔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과 실내디자인 사적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5권 4호, 2006, pp. 3-11.

정영효, 「조선호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상」, 『한국어문학연구』 제56집, 2010, pp. 317-348.

서동제 외, 「京城都市構想圖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제78권 687호, 2013. 5, pp. 1179-1186.

_____, 「テ・ラランデの京城都市構想圖と景福宮敷地平面圖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제79권 699호, 2014. 5, pp. 1211-1219.

西原大輔, 「近代日本絵画のアジア表象」, 『日本研究』 26집, 2002. 12, pp. 185-220.

染谷滋, 「湯浅一郎資料調査報告」, 『群馬県立近代美術館研究紀要』 제2호, 2006. 3, pp. 1-27.

국문초록

조선호텔은 1914년 10월, 고종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된 환구단과 석축의 일부를 허물고 조선총독부 철도국 직영 호텔로 개관했다. 1960년대 호텔이 철거되기 전까지 본 건물 1층 중앙 홀과 연회실에는 일본 근대 서양화가 야마시타 신타로(山下新太郎, 1881-1966)와 유아사 이치로(湯浅一郎, 1868-1931)가 제작한 벽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는 이들 벽화를 대상으로 식민지 근대 벽화의 公的 기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벽화는 단순히 벽면을 장식하는 심미적인 목적 외에 그림이 놓여 진 공간을 상징, 표상한다는 점에서 화가 개인의 창의성보다 '공공성', '사회적 기능'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대 벽화의 공적 기능이라는 관점에 주목하여 조선호텔 벽화의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호텔 벽화의 전체상을 사진과 미술잡지, 보고서 등을 통해 복원하고, 주제 선정의 경위를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취미'와 조선총독부 철도사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벽화의 주제 선정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철도사업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 홀에 설치된 "수원, 경주, 전라북도, 금산사, 개성, 경성 창덕궁 비원, 우이동 및 금강산의 절경"은 1914년경 완공되는 철도노선과 일치하는 장소들이며, 일본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향유되던 명승고적과는 궤를 달리 하는 것으로, 결국 조선호텔 내부를 장식한 "조선의 風色"이란 조선의 풍경이자, 제국 일본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전통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하는 일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였다. 실제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본격화되는 도시개조를 통해 조선왕실의 상징공간은 제국의 권력과 질서를 재현하는 공간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처럼 과거의 권위와 전통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이미지를 덧입히는 작업은 환구단을 허물고, 제신의 위판을 봉안한 황궁우를 후원의 완상물로 삼으며 건립된 조선호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제국 일본에 의해 새롭게 조명된 조선의 명소를 주제로 한 조선호텔 벽화는 이런 점에서 단순히 벽면을 장식하는 심미적 기능을 넘어, 새로운 공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all Paintings in The Chosun Hotel and the Public Function of Modern Colonial Murals

Kim, Jungsun*

In October 1914 The Chosun Hotel, under the ownership and direct management of Railway Bureau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pened its doors on the very site of destroyed Wongudan Altar where the enthronement ceremony of Emperor Gojong (1852-1919) had taken place. From its establishment until dismantlement in the 1960s, the Hotel has featured wall paintings by Yamashita Shitaro (1881-1966) and Yuasa Ichiro (1868-1931), modern Japanese painters specialized in Western-style painting, in the central and the reception halls on the first floor of the main building. This study examines these hitherto understudied murals, aiming to illuminate the public function that modern mural paintings have carried out in Korea's colonial period.

Given a mural painting not merely adorns a wall surface but also represents and emblemizes the space to which it belongs, its production involves public and social functions far more than an individual artist's creativit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ublic aspects, this essay attempts to disclose political implications underpinning the murals in The Chosun Hotel. For this purpose, I will first reconstruct a general view of the murals in the hotel from

* Dong-A Univers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5B5A07042758)

photographs, art magazines and reports, and then connect the choice of subject matters with both Japanese “interests in Joseon” an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ailways in Korea that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controlled.

It seems, in fact, that the choice of subject matters was inseparable from the government’s railway enterprise: the places depicted in the central hall, such as “Suwon, Gyeongju, Jeolla northern province, Geumsan mountain temple, Gaeseong, Biwon (Secret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garden in Gyeongseong (Seoul), Ui-dong, and Mount Geumgang,” are in line with a rail route completed in around 1914 and include those that Japan newly “discovered.” Since they differ fundamentally from the traditionally renowned places of scenic beaut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e “nature colors of Joseon” that embellished the interiors of the hotel refer ultimately to new discoveries by Imperial Japan, the colonial landscape of Joseon. The above findings lead to a conclusion that the murals in The Chosun Hotel, while standing on the space of Joseon royal authority, has played a public role in flaunting the power of modern Japan and its ownership of colonies.